

니카야서 길을 묻다 8. 오늘날 필요한 계(戒)①

계(戒)는 '땃땃함'의 힘

‘도덕적 완성의 지향’을 ‘계(戒)’로 정의하면, 종교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나 금기사항 정도로 불교의 계율을 잘못 이해하는 수준은 넘어서 수 있다. 곧 계(戒)를 지키는 것은 특정한 규율이나 금기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의심 없이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의 본연의 삶과, 확산에서 비롯하는 마음가짐을 언제나 지켜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학의 존재 이유, 즉 스스로의 확산에 따라 도덕적 완성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하려면 ‘계(戒)’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볼아야 한다.

생명체라면 무엇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바람을 토대로, 스스로 살아있음을

자신의 지성, 견해, 안목, 품성, 공감능력 등의 면모를 끌어올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으로의 도전과 실험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 어떤 ‘자리’를 얻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다른 이가 잘 해 내지 못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품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외부 대상에 기대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해나가는 쪽을 주로 택한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존재감은 쉽게 바뀌어 사라지거나 시들어버리는 성격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계(戒)의 의미 있음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림 · 양경수

한껏 누리고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바람을 지니고 있음을 먼저 생각해볼자. 이를 ‘존재감’이라고 이름 붙여보면, 존재감을 언제나 맛보고 싶어 하는 소망은 생존과 생식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바람만큼이나 매우 강력한 에너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또렷이 맛보며 사는 데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더 인정받는 일터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매력적인 이성과의 만남, 더 많은 소유와 소비생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과 부러움의 시선 등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 더욱 커진 존재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얻기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존재감에서는 바라던 것을 성취하는 순간의 강렬한 느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정신적인 성숙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존재감은 남다르다.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의 시선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지향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용장〉 ‘대품(大品)’에는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다섯 가지 공덕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중 세 번째 공덕으로 제시된 “계율을 지키는 자는 어떤 모인에 가더라도 확신이 있고, 주저함이 없다”는 말에서 오늘날 누구에게나 ‘계(戒)지킴’이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임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데는 남다른 안목과 확신, 강력한 열정과 의지, 지속적인 노력 등의 자질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가면 너무나 든든한 또 다른 길동무가 바로 ‘계(戒)’라는 선언이자, 정신적인 성숙을 조건으로 기대하는 존재감에는 ‘땃땃함’이라는 마음의 요소가 필수라는 설명인 것이다. ‘계 지킴’의 의미는 ‘땃땃함’이 없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를 오늘에 우리에게 묻는다. 바로 이와 같은 땃땃함을 갖추기 위해 일상의 행위를 스스로 조심하고, 단속하고, 제어하는 일로 꾸려가는 공부의 길이 바로 계학(戒學)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모두가 평등한 도반 공동체...



(주)마인드디자인은... 2011년 불자 청년 김민지 씨의 1인 기업 'mim'이 시작으로 2012년 불교박람회 기획 및 운영사로 선정되면서 지금의 '(주)마인드디자인'으로 법인 전환했다. 2016년까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획·운영사로 활동 중이다. '전통문화 일상화'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회사로, 운영방침은 불교 수행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할 청년 불자 사회적 기업이다.

道伴의 향기

(주) 마인드디자인

2011년 4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법륜 스님의 2030 멘토링 콘서트 '방황해도 괜찮아' 현장. 한 여성 불자가 질문을 한다. 선재수련원에서 인도 봉사를 갔었는데 그곳 사람들을 보고 전통문화를 지켜주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경청한 법륜 스님은 당시 친절한 설명과 격려를 직문직설해 줬다. 자본주의에 멍들어가게 제3세계 전통문화 정체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대중 앞에서 당당히 밝혔던 여성 불자는 진짜 '전통문화 일상화'를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을 창립한다. 그 기업이 바로 '(주)마인드디자인'이다.

“우리 것은 원래 세련돼”

(주)마인드디자인은 김민지 대표의 '전통문화 일상화'라는 원력에서 시작한다. 제1회 조계종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2등에 입상한 김 대표는 자신의 불교 주얼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2011년 1인 기업 'mim'을 만든다. 사찰에 발품을 팔면서 성공적인 매출을 올리던 김 대표는 2012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획과 운영을 맡게 되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을

2011년 창립... 5년간 꾸준한 성장세 김민지 대표 등 모든 임직원은 '도반' 수행은 기본, 대중공사·자자·포살 등 승가 공동체 규약을 그대로 도입·운영 “행복·꿈, 동시 이루는 기업 만들겠다”

출범시킨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철석데이 등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 △명상 펜던트 등 문화 상품을 진행·출시하면서 회사를 발전시켰다.

처음 자본금 제로에서 시작해 매출 11억 원, 직원 15명으로 성장시킨 바탕에는 김 대표의 열정과 원력이 있었다.

김 대표는 “대학 디자인과에서 전통 문양 디자인 등을 과제로 제출해 발표하면 대부분 반응이 시큰둥했다. 하지만 인간문화제가 꿈이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생각은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로 편입하면서 더 강해졌다”면서 “스님을 알고, 사찰을 알고, 불교를 알아갈수록 안에 담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통문화 일상화'는 김 대표의 화두이자 (주)마인드디자인의 목표다. 이런 마음과 목표를 가지기까지 바탕에는 불교가 있다. 김 대표가 선재수련원에서 수행할 당시 인도에 봉사활동을 다녀올 일이 있

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한국 봉사단을 부러워하는 것을 봤다. 이는 한국이 인도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자본주의가 이곳(인도)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가진 전문문화 정체성이 망가질 게 뻔한 일이었다. 자본주의 안에서 전문문화 정체성을 지키고 이를 일상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필요했다”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의 시작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자본주의 안에서 전통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있어서 성장하는 기업

1인 청년 기업으로 시작한 (주)마인드디자인은 이제는 불교계에서 유수의 청년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과 (주)마인드디자인은 ‘불교’가 없으면 탄생할 수 없던 인물이고 회사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2등을 했던 경력으로 시작했던 불교 주얼리 상품 개발 사업도, 이를 베이스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도 모두 도전이었다. 불교에 전혀 기반을 가지지 못한 김 대표는 불교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웠고,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는 “너희가 왜 사회적 기업이나, 불교 기업이지?”라는 무시어린 무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끊임없이 불교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무작정 사찰에 찾아가 자신이 만든 명상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모습. (주)마인드디자인이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주)마인드디자인의 문화상품 '숨'. 부처를 형상화한 향꽂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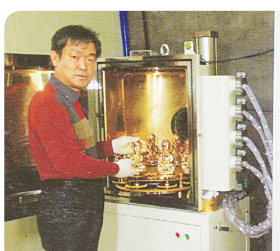
2015년 칠석데이. (주)마인드디자인을 대표하는 이벤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성불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하루... 삭발할 때 상처없이 밀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머리결이 강해 고생하는데... 스님! 削髮면도 힘드셨죠! 이젠 안심하십시오! 스님 삭발전용 비누가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도 안나고 진작 사용할 걸!

스님 삭발용 편백비누 削髮快
편백원목오일 조정광전수 함유
부드러운 삭발 두피손상방지 피부자극최소화

편백효소언 총복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61
Tel 043-296-7776 Mobile 010-3280-7776
http://cafe.naver.com/hinokijungle

“불교 전통문화 일상화가 목표”

팬던트 등 주얼리 제품을 보여주고 남품을 허락받았다. 이를 위해 공양간에 가서 설거지를 하며 공양주 보살들과 친분을 쌓고 스님들이 오시는 시간을 들었다. 3일 동안 기다린 적도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교에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했던 것은 모두 ‘불교는 문화의 보고’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반만년의 한민족 역사에서 불교가 가진 위치는 매우 높습니다. 전체 지정 문화재 중 절대 다수가 불교 문화재이고, 지금도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문화산업 측면에서 보면 불교는 그야말로 보고이며, ‘전통문화의 일상화’라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라며 “불교 주얼리 상품을 들고 패기 하나로 찾아왔던 저를 돌려 보내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줬던 스님들과 저의 견문을 넓혀줬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현재 (주)마인드디자인을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모두 수행하고, 모두 평등한 공동체

(주)마인드디자인 구성원 모두 ‘전통문화의 일상화’라는 가치 아래 모였다. 창업 초기에는 대부분 불자들이었지만, 규모가 커지니 종교도 다양해졌다. 입사 경로도 다양하다. 지인 추천부터 페이스북 지원, 김 대표의 강의를 듣고 인턴으로 지원한 사람까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직급이 아닌 수행과 도반이라는 개념이다. 김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면서 승가 수행공동체의 대중공사, 자자, 포살 등을 회사 운영에 적용했다. 일반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중공사는 반성의 시간, 자자와 포살은 장단점 이야기·선물 주는 시간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보통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IT계열 대기업 회사들의 업무환경이 이슈가 된다”며 “한국에서 일도 잘하고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려면 일하는 곳이 꿈을 꾸는 곳이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마인드디자인은 호칭부터 자유롭다. 외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부르지만, 내부에서는 직급과 상관없이 이름에 ‘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회사의 운영 기조가 담겨 있는 것이다.

복지제도에는 ‘마음 쉼’이라는 일종의 안거제도가 있다. 스스로 수행을 원하면 30만원 한도에서 수련비와 4박 5일간의 수련 휴가가 지원된다. 꼭 불교 수행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개신교인은 기도원, 가톨릭 신도는 피정을 해도 된다. ‘수행하는 평등도반 공동체’를 표방하는 (주)마인드디자인이라 가능한 복리후생이다.

임직원들의 호응도 좋다. 수행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 종교가 달라도 큰 부담이 없다. 수행이란 ‘스스로 깨닫고 성장·발전하는 것’이라는 김 대표의 생각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주연 자원부 부장은 “보통 회의에 들어올 때 바빠 오느라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는 3년안에 사찰 2곳의 브랜딩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불교 제외하면 전통문화 이야기 못해 박람회, 불교 산업 가능성 보여주는 곳 사찰 브랜딩 사업통해 일반과 가교 역할 “불교 산업은 블루 오션, 가능성 무궁해”

우리는 회의 시작 전 짚거나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추스르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니 업무와 자아성찰, 모든 부분에서 효과적”이라면서 “또한 승가 공동체의 계율과 정규와 같은 공동의 약속 등을 정해 스스로 변화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강연에 감명 받아 인턴으로 입사해 올해 정직원인 된 사원 김재연 씨는 종교가 가톨릭이지만 승가 수행 공동체같은 조직 분위기에 거부감이 없다.

김재연 씨는 “(주)마인드디자인은 저에게는 첫 회사”라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은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이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만, 경쟁은 없다. 서로 협업하고 함께 상생하는 도반과 같다”고 설명했다.

나를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주)마인드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전통문화 일상화’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진하려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사찰 브랜딩 (Branding)’이다. 사찰 브랜딩 사업은 사찰 아이덴티티(일명 Temple Identity, T.I.)를 디자인하는 것

으로 시작한다. 이후 사찰별 특별한 문화상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다. 3년 안에 사찰 2곳의 브랜딩을 완성하는 것이 (주)마인드디자인의 목표다.

김 대표는 “불교적인 요소를 기반해 전통문화가 세련되게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은 사찰과 일반문화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통문화 허브공간과 연구소를 통한 교육 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소외문화보존 구호 사업 등을 하고 싶다”고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구성원들도 스스로를 밝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스스로를 발전시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을 공동된 목표로 삼고 있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일하는 재미가 있는 회사가 됐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삶과 사회의 큰 뜻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청춘의 도반이 됐으면 합니다.”(이주연 부장)

“(주)마인드디자인은 저에게는 첫 회사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이 회사는 어느 분야에서든 한 획을 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붓에는 여러 무수한 말 총들이 있어서 글이 써집니다. 한 획을 긋는 붓의 말 총 중 하나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김재연 사원)

(주)마인드디자인은 젊다. 그래서 밝고 활기차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린다. 이 젊은 부처들은 불교 전통문화의 일반화라는 불국토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수행’과 ‘도반’이라는 가치 아래서.

글=신성민 기자·사진=노덕현 기자

전법일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전주교 수녀님과 강연 차 강원도에 가는 길이었다. 대관령을 넘어 갈 즈음 폭설로 차가 멈췄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은세계가 펼쳐졌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흘러들어 왔다. 멀리 산에서 무언가 꼬물꼬물 내려와 지켜보는데 수녀님이 먼저 소리쳤다. “어머니, 토끼예요!”

배가 고파 먹이를 구하러 내려왔을까, 폭설에 길을 잃었을까, 어디로 갈지 몰라 경중거리다 멈춰 서서 귀를 쫓긋거리는데 토끼를 보고 저마다 귀엽다는 듯 눈을 떴다. 그때 차에 동승한 누군가가 말했다. “똥똥하니 맛있겠는걸요.”

듣기 거부했지만 농담이려니 하며 조금 웃고 말했다. 토끼고기를 먹어본 이는

이었다.

또 부처님은 육식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하셨다. 첫째, 몸이 아플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둘째,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공양한 것은 먹지만, 일부러 청해서 먹지 말라. 셋째, 삼정육을 먹어라. 삼정육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기로, 죽이는 모습을 보지 않고, 죽여가는 소리를 듣지 않고, 특별히 나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 경우이다. 육식에 대한 이런 기준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과 부합하여 ‘고기를 먹지 말라’는 대승보살계율이 제정되었다.

육식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찰음식을 말할 때 육식이나, 채식이나에



그림·박구원

토끼를 맛으로 기억한다. 바로 업(業)의 결과이다. 업이란 인과관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이치다.

음식이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품이 만들어진다. ‘어떤’은 음식의 종류만이 아니다.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생각하는가. 이는 삶의 태도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 고민을 상담하러 온 이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라고 물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통 ‘사찰음식’ 하면 채식을,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번도 채식을 장려하고, 육식을 금지하지 않으셨다. 부처님 시대, 수행자들은 탁발을 했다. 발우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얻어 생활하는 수행방식이다. 신도들이 보시하는 대로 먹어야 했기에 간혹 고기도 먹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먹고 남은 음식은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주었다. 내일을 위해 먹을 것을 남기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이렇듯 탁발은 아집을 버리고 절제하고 육식과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행

지나치게 간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채식과 육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식(小食)’이라고 하셨다. 육식에 대한 경계이다. 채식만 고집하는 것도,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는 것도 모두 집착과 육심이다. 이것이야말로 고(苦)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이다. 사찰음식의 근본은 마음속 깨달음을 지향하는 선식(禪食)인 것이다.

내가 진행하는 사찰음식 강의는 보통 1년 과정이다. 시작할 때는 수업 동기를 묻지 않지만, 끝나는 날만큼은 꼭 소회를 묻는다. 이번엔 한 분이 이런 소감을 말해 팬스레 웃음이 시큰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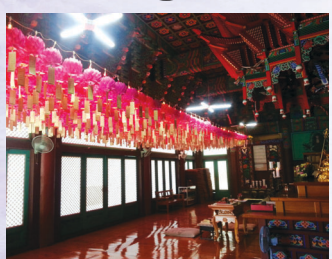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선제 스님 사찰음식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의 들으면서 어느새 저는 삶의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처음 사찰음식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찾아왔듯, 앞으로도 스스로의 행복,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인연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행복을 함께 열어가는 보살이 되기를 바란다.

선제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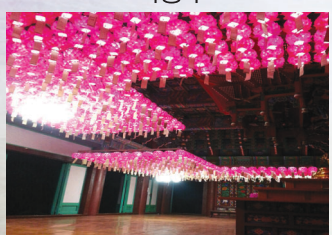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시공전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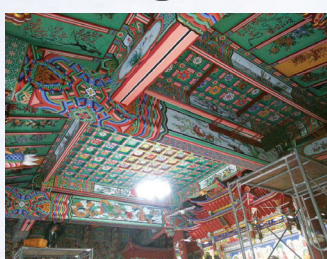


시공후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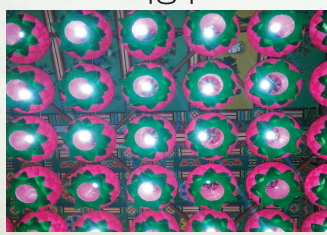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하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 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일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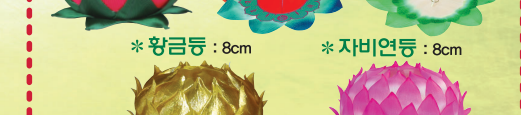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 가격 · 할인 · 예외 · 품목

*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일매형(다홍)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